
	<h1>보도자료</h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데이터팜애자일팀 정현상 팀장(051-831-0761)		
배포번호 : 2021-43 배포일자 : 2021.11.17.(수)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미래농업을 위한 데이터팜' 으로 스마트농업 생태계 활성화

- KISTI,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발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울주군,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한국한의학진흥원, 울산대학교, 팜에이트, 알가팜솔루션, 인성테크, 푸드팜, 웰파스페이스, 굿팜즈 등이 참여하는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을 17일 발족하였다.

미래농업은 로봇, 인공지능, ICT 등의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국내외 농업의 현안문제 극복 및 생산성·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미래자원으로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혁신은 초기단계이다. 첨단기술과 데이터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미래농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농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혁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STI는 2009년부터 산학연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약 12,000명, 15개 지역별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식공동체를 구축·운영해온 바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KISTI 김재수 원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자 ASTI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DX-ASTI를 선언하고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데, KISTI가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농업을 위한 데이터팜 구현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미래농업을 위한 데이터팜 애자일팀을 신규 조직으로 설치하고, 우선 지역기반의 스마트팜테크 DX-지식연구회를 구축하였다. 향후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과 협력을 통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농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계획 및 스마트팜 보급확산지원사업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스마트팜 정부 지원사업 현황과 이슈(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김균장 팀장) ▲스마트팜 R&D 트렌드: 국내외 현황 및 방향(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형석 센터장)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온실관리 및 실제 활용 사례((주)지농 박훈동 대표)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KISTI의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기술 및 기술사업화 경험을 토대로 본 포럼 및 지식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ASTI 기업 중에서 미래의 데이터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부문의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KISTI가 그간의 경험과 자원을 기반으로 농업부문의 지식과 데이터자원을 연계하여 미래농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발대식 사진자료



KISTi 김재수 원장이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발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